

성소수자의 자긍심은 사랑할 수 없나?

김한나 (카이로스 연구원)



편집자주. <월드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이는 본지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낯선 것이다. 15년 전 커밍아웃 한 홍석천 씨가 거의 유일한 동성애자로 기억되고 있으니 실제로 동성애자와 마주하게 된다면 그 당혹감은 얼마나 클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평범한 이웃으로, 친구로 지내고 있을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침묵하며 벽장 속에서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시선 즉,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하게 될 격렬한 반응 때문이다.



시위는 어떻게 축제가 되었나

동성애는 근대적 식별 범주이다. 즉, 다른 근대적 기획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와 대상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치열한 경합 과정을 거쳐 구성된 문화적 범주들의 담론적 효과라는 말이다.¹⁾ 사실 동성애 행위는 고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일시적인 일탈이나 유희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인간 정체성을 규정짓는 특징으로 여기지 않았다. 동성애를 병리적인 것으로 규정한 의료담론이 발전한 것이나, 동성애자를 정체성에 기반을 둔 공통의 집단으로 가정하여 통제하기 시작한 것 모두 20세기부터이다.²⁾

이 시기의 인권 운동가들은 동성애를 질환으로 규정한 정신의학적 관점에 도전하며 동성애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정신의학이 아니라 정치적 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이성애 중심의 세상과 의료 전문가들이 자신들을 병리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기던 자신들의 감성을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 공문화시켰는데,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1969년 스톤월 항쟁이다.

스톤월 항쟁⁴⁾은 성소수자들이 차별에 대응하도록 자긍심(Pride)을 일깨웠다.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통제받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고 사회적 편견과 혐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스톤월에서 자긍심 퍼레이드(Pride Parade)가 유래하게 되었는데, 차별받고 소외당했던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의 인식 개선 및 인권 보장을 정당하게 요구하며 대로를 행진(parade)하는 행위이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도시로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 퍼레이드는 화려한 축제이면서 동시에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시위이다.



자긍심(Pride)은 혐오를 당황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자긍심 퍼레이드가 개최되고 있다. 2000년에 처음 들어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축제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 지역민 등이 서로를 긍정하고 축복하는 일종의 사회적 상견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도 성소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드러내며 존엄과 인권을 요구하는 자긍심 퍼레이드를 가졌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이성애 중심의 세상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놓고 진정한 자아를 대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근거로 차별이 난무하는 억압적인 세상에서 일년에 단 하루, 축제의 형식을 빌린 안전한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을 열어 숨겨두었던 매력을 뽐낸다. 이날만큼은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허락되는 것이다. 이날의 해방감과 자기긍정에서 얻은 자긍심을 기억하며 남은 364일을 산다는 자기 고백들이 이어

지고, 며칠 후에는 사랑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자아 때문에 상사병을 앓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퍼레이드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혐오세력이 당황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고통과 자기비하로 몸부림쳐야 할 성소수자 대신에 뜻밖에도 자기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찬 전인격체를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 말이다. 자긍심 앞에서 혐오세력의 동정어린 시선과 원색적 비난은 그 목적과 대상을 잃고 만다.

보수 기독교 세력과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올해 열린 자긍심 퍼레이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⁵⁾ 이들은 선전적인 혐오와 저주 발언을 쏟아내며 연중 단 하루뿐인 성소수자의 날을 집요하게 막아섰다. 길바닥에 드러누워 퍼레이드 차량의 이동을 막고, 통성기도를 가장하여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불특정 다수에게 매질을 가하고 욕설을 내뿜었다. '세월호 추모 콘서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혐오로 가득찬 집회를 열어 참사 피해자들

과 유가족들, 그리고 상처 입은 시민들의 슬픔을 이용한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이날 가면을 벗은 것은 동성애자들만이 아니었다. 혐오세력은 증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들의 방해로 행사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준비된 공연을 즐기면서 눈앞의 탄압과 혐오에 대항하는 즉석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자긍심 퍼레이드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볼 수 없었던 후안무치한 폭력을 목도한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다. 단 하루 성소수자에게 허락된 안전한 공간마저 침탈해야만 했을까? 원색적인 혐오 행동으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죽도록 혐오하기?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슈는 일부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의 극단적인 여론몰이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전부인 양 혐오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동성애에 대한 시민사회적 합의를 일구어낸 나라들이 파기된 비과학적, 반인권적 자료들마저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는데 동원하고 있다.⁶⁾ 선진국이니 무조건 따르자는 사대주의가 아니다.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한 사회의 갈등과 토론을 존중하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무시한 채 조작적 정의나 지엽적인 통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임에도, 혐오집단은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 성향, 기질 내지는 특정 문화현상으로 파편화시켜 문제의 본질인 권력과 위계의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의 차별과 혐오로 탄생한 성소수자 인권운동(자긍심 퍼레이드)을 "타락한 성문화"의 원인으로 도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혐오세력의 자극적이고 극렬한 반대는 동성애자의 존재와 인권이 마치 '논쟁적인' 문제인 양 왜곡하는 프레임이 조성하고 있다. 성별, 인종문제처럼 타인의 존재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은 특히 공공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듯 보인다.⁷⁾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에 일종의 정치적 부담을 지워 반인권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다.⁸⁾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갈등을 헌법의 가치에 맞게 적절히 다루고 중재해야 할 공적 영역인 국가는 동성애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혐오세력들의 선전적 피켓팅에 즉각 반응하며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고 있다.⁹⁾

차별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마다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들은 승리의 성취감, 신의 뜻을 대리한다는 사명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의 가치 혹은 정체성에 위계질서를 매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학이다. 종종 혐오세력들은 '상식', '문화', '종교'라는 무궁술을 만들고 혐오를 탈정치화시켜 그들의 증오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한다. 권력과 집단의 맥락에서 벗어난 차별과 혐오는 그 문제의 접근방법과 해결방법을 개인적인 차원, 선악의 이분구도로 단순화시켜 '차별할 권리', '배제할 권리'까지 주장하게 된다. 자신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채 타인을 색출하고 박멸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신앙이 과연 바람직한 방식인지 묻고 싶다. 혐오가 기독교 신앙일 수 있는가? 혐오로 종교적 승리를 맞보는 것은 정당한가?



자금심의 기독교적 재현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동성애자 관련 이슈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멈추고 정상성 내부의 특권적 지위를 공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검증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수사 속에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차별과 배제, 억압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인정받아야 할 보편의 가치인 '사랑'을 저항과 투쟁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급진적인 정치 용어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 사회는 동성애자에 대해 익숙하지도, 수용적이지도 않다. 한국 사회, 특히 사랑의 종교라 불리는 기독교가 다소 서툴고 어렵더라도 이 낮은 이들을 윤리적인 태도로 대할 수는 없을까? 앞선 역사와 맥락을 살펴보는 조심스러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혐오로 인해 분절되고 왜곡된 동성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스

스로 이루어온 해방의 역사가 진술하는 성소수자의 가치와 자의식을 존중하는 것 말이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인 동성애자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혐오와 차별에 맞서며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동성애자의 존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한다는 편견을 깨는 소수의 집단이기도 하다. 혐오일색인 한국 기독교 내 동성애에 담론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의 왜곡된 프레임, 반론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된 전선/담론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스톤월의 첫 용기와 그날의 자금심을 한번 더 요청하는 일이 될 것이다.

1) 미셸 푸코 (2004). 성의 역사1: 얇은 익지, 나뭇잎.
 2) 애너메리 야고스 (2012). 퀴어이론 입문. 도서출판 어이언.
 3) 같은 책.
 4) 60년대 뉴욕에서 경찰이 게이 바를 급습하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성소수자들을 쫓아내고 체포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1969년 6월 28일 경찰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뉴욕의 허름한 게이 바 '스톤월 인'을 급습하였을 때, 손님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대신 불평등과 슬로건을 외치며 시위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탄압과 혐오에 저항한 이날은 성소수자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구성되었음을 가리키는 날로서 기념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스톤월 항쟁의 집단적인 저항의 경험을 자금심 프레임들을 통하여 기억한다.
 5) 퀴어문화축제 직전 '신촌 동성애 뺨스 카퍼레이드 반대 일만 명 국민대회'라는 헤드라인의 인터넷 기사가 복수의 개신교 기반 인터넷 언론사에서 복제되어 배포되었다. 이들은 이름의 선정적인 부양수처럼 노골적인 말들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신촌(대구) 동성애반대청년연대와 같이 행사의 성격도, 주최도 모호한 다수의 집회와 연대체가 생겨났다. 예수재단, 에스더가이드운동본부, 올리비아프 등 주요 이슈마다 반동성애 운동들을 벌이던 이들에 대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우익단체인 대한민국어바이어연합도 관여했다.

6)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혐오세력의 핵심 논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1952년에 처음 출판된 정신질환분류(DSM)에서는 동성애(homosexuality)가 질환으로 등재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학적, 성 과학적, 심리학적 연구들과 인권운동을 거쳐, 1990년 5월 17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주장할 의학적 증거와 지식은 없다. 성소수자들은 이날을 아이다호 데이(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7)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와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규약,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인권옹호 담화, WHO의 질환삭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그보다 앞선 토론이 있다. 특히 올 6월 미국 장로교(PCUSA)가 미국 루터교의 뒤를 이어 목사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교단 차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기독교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8) 토리 (2012). 뛰는 혐오, 나는 인권: 성소수자 혐오, 공격 넘어서기 좌담회 자료집 중 '혐오세력 무시하기 혐오 공격 넘어서기'
 9)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 6조항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의 인권보장 내지는 침해에 관련한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법률과 조례 제정 이슈에는 빠짐없이 등장하여 혐오담론을 생산해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앞장서 왔다.



김하나 연구집단 카이로스 연구원(<http://cairos.tistory.com>), 대학원에서 여성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은 섹슈얼리티와 종교, 교회의 가족중심성이다. 가족 혹은 남성과의 관계맺음 속에서만 여성에게 정상성과 여성됨을 허락하는 이성에 중심주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주의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동성애, 너와 나를 인정하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김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

혹시, 이것도 알고 있나요?

6월 12일 전국 고등학교들이 치른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성적소수자(동성애자)와 동성결혼에 관한 문제 세 개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세 문제 모두 학생들로 하여금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즉, 성적소수자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외국의 추세이고 옳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에 동성애자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주장이 실리게 되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들이 편파적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또한 6월 7일에는 서울 신촌에서, 6월 28일에는 대구에서 퀴어축제(동성애자 축제)가 열렸다. 영등기를 드러내며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저 유희 공연에 불과해 보인다. 이러한 집회가 가능한 것은 동성애자 집회를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와 진보 성향 국회의원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퀴어축제가 미국 대사관도 부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다른 나라 윤리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편집자주, <월드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이는 본지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